

우 리 의 목 표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새해인사! 氣山心海

기운은 산처럼, 마음은 바다처럼

月刊

1

2008년 1월 1일
제 262호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발행인 諸宰馨 편집인 金珧熙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T. 02)732-4797, 2001-7621 F. 02)730-1270
www.kjclub.or.kr E메일 kjc1405@hanmail.net

새해 祝詩

아, 새날이네요

햇빛처럼 파도처럼

-새해 새날에 부치는 노래

새해 새 출발

오늘같은 날엔

주름진 얼굴 활짝 펴고

반짝이는 햇빛속으로 나아갑시다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빗살

그 환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어제는 참으로 외로웠지요

대낮이 밤인 듯 몽롱한 세월

자주자주 독선의 광풍이 몰아쳐

말 못할 쓰라림에 괴로웠지요

그러나 마침내 새날이 밝아

연민과 실의에 응어리진 사연

모두모두 눈 녹듯 사라지네요

보았지요

큰비 내리면 흙탕물에 자맥질하는 풀들

비 그치면 더욱 푸르러지는 풀들이

드넓은 초원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 가슴가슴

속으로 불타던 염원의 불길

오늘은 생명의 대지에 꽃을 피웁니다

아, 새날이네요

모진 업보의 시련을 딛고

새날이 새롭게 태어나는 뜻

기다림이 축복임을 아는 그대

이제, 환희의 새해맞이

축제 한마당으로 나아갑시다

억겁이 하루같은 항심(恒心)의 바다

젊음을 연주하는 파도가 되어

희망을 수 놓는 햇빛이 되어

이준기

· 본회 논설위원

· 시인

· 전 서울경제 편집국장 대리

元旦 時論

보수정권시대 언론의 길

南時旭

· 본회 회우
· 세종대 석좌교수
·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 정치에 새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함량미달의 열지기 좌파정권이 빚은 국정 난맥상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누구보다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을 훼손하는 언동을 서슴

은 더욱 교만해져 한반도의 평화정착은커녕 국민들의 안보불안만 가중시켰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많은 반면교사적 교훈을 남기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었다. '민중혁명'이니 '선거혁명'이니 '국민들의 표폭탄'이니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압도적 다수로 승리한 이명박 당선자는 현재 취임준비를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당선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화합속의 변화'를 강조해 노무현식 '편 가르기'와 좋은 대조를 보였다.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선진화' 공약은 그의 이른바 '747' 계획'으로 구체화 되어 있다. '747계

진보정권의 일부 진보언론 처럼
무조건 권력을 싸고 돌지 말아야

지 않았고 민주국가의 기본인 언론자유를 통제하는데 골몰했다.

물론 노 대통령에게 과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권력의 분권화로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한·미 FTA를 체결한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안보 외교 대북정책 경제 부동산 국토개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정파탄'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실정을 거둬한 엄청난 과오는 그의 공로를 무색케 했다.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깡판쳐도 괜찮다"는 그의 어처구니없는 망발은 집권기간 동안 현실로 나타났다. 그는 경제를 침체시키고 김대중 정부 때의 근 두 배나 되는 4조5천여억원을 북한에 퍼부었다. 그러나 그 돈으로 핵 개발에 성공한 북측

획'은 경제만 발전시키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해 우리 사회를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연간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오르기만 한다면 한국은 제2의 경제도약을 성취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원유가와 원자재 값 인상, 인플레이 우려 등 여러 요인 때문에 7% 성장에 의문을 표시하는 전망이 많다. 하기야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7% 성장을 내걸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정권 출범 1차 년도에 성장 전망치를 4.2%로 낮추었으나 실적은 겨우 3.1%에 그쳤다.

· 3면에 계속 →

2008년도 정기총회 공고

1월 25일 (금)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제16대 회장 선출

2008년도 제22차 정기총회를 본회 정관 제21조 ②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8년 1월 25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안 건 : ① 2007년도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
②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③ 제16대 회장 선출
④ 기타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회장 제재형

※당일 총회에 참석지 못할 분은 우편엽서의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시어 2008년 1월 18일(접수날짜 우체국소인인면 유효)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謹賀新年

大韓言論人會

戊子 元旦 임직원 일동

CONTENTS

· 이달의 大韓言論

Column & Essay

⑤

· 훈장 遺憾 · 고희 有感

Cinema

⑧~⑨

· 제3의 사나이 The Third Man

History & He-story

⑪

· 판문점 휴전 협상

People & People

⑭

· 사우회 '07 송년의 밤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는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人間改造)와
정신개벽(精神開闢)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 · 구제창생(救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 ·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이룩한다.

연 혁

- 1958년 3월 (음) 도전 박우당(朴牛堂) 도주 조정산의 유령으
로 종통계승
- 1969년 4월 (음) 종단 대순진리회 창설 및 중앙본부도장 창건
(서울시 광진구 증곡동)
- 1971년 5월 (음) 중국도장 영대 봉안
- 1974년 3월 (음) 《전경(典經)》발행
- 1976년 3월 대순장학회 발족
- 1984년 2월 학교법인 대진학원 설립(현 학교법인 대진대
학교)
- 1984년 12월 대진고등학교 설립
- 1986년 10월 (음) 여주수도장 건립 및 영대 봉안(경기도 여주
군 강천면 가야리)
- 1988년 11월 대진여자고등학교 설립
- 1989년 6월 (음) 제주수련도장 건립(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 1991년 11월 대진대학교 설립

- 1992년 6월 (음) 포천수도장 건립(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 1992년 11월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설립
- 1993년 1월 (음) 여주수도장으로 종단 본부 이전
- 1994년 2월 분당대진고등학교 설립
- 1994년 10월 대진전자공업고등학교 설립(현 대진디자인
고등학교)
- 1995년 1월 분당제생병원, 동두천제생병원 기공
- 1995년 1월 일산대진고등학교 설립
- 1995년 8월 종무원장 임명(이유중 종무원장)
- 1995년 10월 대진전자정보고등학교 설립(현 대진정보통
신고등학교)
- 1995년 12월 (음) 도전 박우당 화천(化天)
- 1995년 12월 (음) 금강산토성수련도장 건립(강원도 고성군 토
성면 인흥리)
- 1997년 11월 금강산토성수련도장 마름불 봉안

- 1998년 1월 충북대진대학교 기공
- 1998년 8월 분당제생병원 개원
- 1999년 8월 (음) 박성상제 영대 봉안 (도전 박우당)
- 2000년 5월 러시아 연해주에서 영농사업 실시
- 2000년 10월 고성제생병원 기공
- 2001년 4월 연해주 농장 수확 곡물 북한에 지원
- 2001년 5월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설립
- 2001년 6월 노인주거복지시설 골든벨리 및 아동양육시설
우리집 운영
- 2002년 3월 러시아 현지 영농법인 (유)아그로상생 설립
- 2002년 3월 노인의료복지시설 상생노인전문요양원 기공
- 2002년 4월 연해주 쉼추쥐느 농장 인수 외
- 2007년 현재 15개농장(3억5천만평) 운영
- 2005년 5월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종단 대순진리회 종무원장 이 유 중

■宗旨(宗旨)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 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

■신조(信條)

사강령(四綱領) -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
(修道)
삼요체(三要諦) - 성(誠) 경(敬) 신(信)

■목적(目的)

무자기(無自欺) -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 - 세계개벽(世界開闢)

■삼대중요사업(三大重要事業)

◇ 구호자선사업

불우이웃돕기, 불우아동돕기, 신체장애자돕기, 나환자돕기, 이
재민돕기, 수재의연금 모금, 재해지역 피해민돕기 등

◇ 사회복지사업

자연보호캠페인, 교통질서 및 거리정화운동, 지역개발사업,
방법활동, 농촌일손돕기, 미아보호운동, 경로사상선양운동, 청
소년육성회 돕기

•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 아동양육시설 우리집
- 노인주거복지시설 골든벨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상생노인전문요양원
-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 러시아 현지 영농법인 (유)아그로상생

• 의료사업 -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 분당제생병원
- 동두천제생병원
- 고성제생병원

◇ 교육사업

• 육영사업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 대진대학교
- 대진고등학교
- 대진여자고등학교
- 분당대진고등학교
- 일산대진고등학교
- 대진디자인고등학교
-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 충북대진대학교

• 장학사업 - 대순장학회

- 장학금 지급상황(1976년~2005년)
79,277명에게 31,636,497,640원 지급

溫故知新

열사와 지사 ‘언론집안’ 자부심

무식하면 겁 없이 용감할 수 있다고 반성된다. 뿌리도 모르고 집안 내력도 알지 못한채 40여년을 뛰며 살았다. 뒤늦게 대대손손 열사(烈士)와 지사(志士)가 세운 집안 족보를 읽고 자랑스러웠다.

‘대한언론인회 30년사’가 건국 이래 격변기를 증언하는 용맹전사들의 기록이었다. 해방공간에서부터 6·25와 월남전 종군 및 민주화 투쟁기를 몸으로 이겨낸 백발 원로기자들에게 수여된 고회기념패가 마치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비쳐졌다.

노 정권의 막바지 ‘언론(기사송고실) 대못질’을 보다 못해 거리 시위에 나서고 맨바닥에서 송고하는 현역들을 찾아 위로한 분들도 바로 백발이었다. 입으로만 공연히 중얼거린 개탄은 부끄러운 노릇이라고 고백해야 할 판이다.

뒤늦게 대한언론인회 30년사가 기록하고 있는 민주언론사가 우리를 숙연케 하는 것도 이 같은 반성



배병후

· 본회 회우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때문이다. 법과 제도마저 미비했던 4·7구락부 시절부터 언론 탄압기와 노 정권의 막무가내 시절에 이르기까지 원로 선배들의 눈부신 활약에 숙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명예의 전당에 봉안된 일곱분의 선진들을 선대(先代)로 모실 수 있다는 자부심은 더없는 영광이다.

잡혀간 경험이 없는 경제기자 출신은 그런 줄도 모르고 바쁘고 긴장했을 뿐이다. 나라가 배고픈 시

절 선배기자들의 강훈(強訓)이 무지막지하여 주눅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독종이 돼야 특종기자 된다”고 우격다짐으로 “발로 쓰라”고 호통 치기에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말씨와 글씨가 빨라지고 걸음까지 급해져 차분하거나 또박또박이 잘 안되는 성미가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그 때 그 시절을 졸속과 과욕이라고 매도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성공했다고 자부하느라고 자랑스러운 우리 집안 내력에는 소홀했음을 이제야 깨달은 셈이다.

원로 선배들의 우국충정이 헛되지 않아 언론탄압 정권이 종식되기에 이르렀으니, 5년 또는 10년 전과는 다른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도 민주언론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와 함께 대한언론인회를 지켜온 선배 원로기자들도 보람과 위안을 삼을 것으로 믿는다. [필자]

클릭! 이 한마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水則載舟 水則覆舟)

‘절반의 승리’

정신없이 흘러간 선거기간이었지만 막상 투표일인 19일 오후6시 텔레비전 방송의 출구조사가 ‘이명박 후보 당선 확실’이라는 예상을 보도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비로소 “아, 지난 1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진영은 그러나 이제 겨우 반쪽의 승리를 거둔 것에 불과하다. 청와대만 탈환했을 뿐, 행정부 국회 문화 학술 미디어 출판 영상 종교계에 파고든 각 분야의 반(反)대한민국 요소들은 여전히 깊고 광범위하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본 여학생들이 일부 픽션화(化)된 장면까지 마치 사실인양 믿으며 치를 떨었다는 이야기를, 이명박 당선자도 아마 들어서 알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문화혁명’의 에누리 없는 실상이다.

비대한 정부, 철 밥통 관료, 불가사리 위원회들, 방만한 공기업, 세금 폭탄을 정리해서 한국을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불법 집단난동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문화 권력을 되찾아 오는 일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진정으로 ‘건국~산업화~민주화’에 이은 제4세대 대한민국의 견인차가 되려 한다면 그는 집권 초기에 대한민국 되찾기를 향해 일대 전격전(電擊戰)을 감행해야 한다. 우리의 후속세대가 ‘태백산맥’ ‘좌파 역사교과서’ ‘동막골’ ‘빨치산 추모제’에 계속 끌려 다니는 한, 이 나라는 여전히 ‘빼앗긴 들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시대’의 성패도 결국은 ‘경제 실용주의’ 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문화 헤게모니 쟁탈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류근일 (언론인)

· 조선일보 2007년 12월 25일 ‘류근일 칼럼’에서

당선자의 민심 읽기

이명박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명박 시대를 이해하려면 갇은 회오리바람 속에서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후보의 압승에 여러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심판 선거였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뿐만 아니라 좌파 비슷한 세력은 모조리 외면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 다음날 동작동 국립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라고 쓴 것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한 처신이라고 본다.

도덕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압승한 그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빚을 안고 있다. 선거에서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인신공격을 한 사람들에게 보복한다면 그는 ‘제2의 노무현’이 될 것이다.

겸손이 이명박 대통령의 필수요건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당선자의 인사를 보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윤곽이 떠오른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인사에서부터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끼리끼리 해먹는 노무현 스타일 인사에는 국민이 질렸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 그것이 있어야 국민 사기에 불을 댕길 수 있으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 참여의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 <서울에서>

이철 (미주한국일보 교문)

← 1면에서 계속

보수정권시대 언론의 길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의 방만한 정부기구에서부터 노조의 전투적 행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작은 정부, 큰 시장, 공정한 경쟁, 법의 지배, 자유와 자율의 확대가 이루어져 경제살리기가 가능하다. 이 점에서 앞으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대단히 크다. 권력은 권력의 속성 때문에, 관료조직은 관료조직의 타성 때문에 오만해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안일에 빠지고, 무능해지고, 부패하기 쉽다.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독려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 세우는 것은 다른 아닌 언론의 할 일이다.

는 것은 다른 아닌 언론의 할 일이다.

지금까지 진보정권 아래서 ‘진보언론’을 자처한 일부 언론매체가 권력과 일체가 되어 무조건 권력을 싸고돌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일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를 비판하는 다른 언론매체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제 보수정권시대를 맞아 이른바 보수언론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메이저 언론매체들은 이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언제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언론의 정도이며, 어떤 경우에도 언론이 권력과 한 패거리가 되는 것은 금물이다. 보수정권이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언론을 포함한 모든 언론의 매서운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기의 한국언론은 이 점을 새로운 좌표로 삼지 않으면 안될 줄 안다. [필자]



太平路만평

沈載福
본회 회우

곳곳에 오염된 '붉은 색깔'도 깨끗이 지워야

16대회장 선거 이번에도 ‘2파전’

諸宰馨 현 회장과 趙昌化 회우 ‘출사표’

1월 25일 2시 정기총회서 뽑아

1월 25일 제16대 회장선거는 현 회장의 단독출마 예상과는 달리 2파전으로 경선을 하게 된다.

지난 12월 14일 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제재형(諸宰馨) 현 회장과 조창화(趙昌化) 회우 등 2명이 등록을

했다. 두 회우는 본회 정관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지난 11월 29일, 12월 10일 각각 등록을 마쳤다.

두 후보는 오는 25일(금요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2008년도 제 22차 정기총회에서 소

견을 발표한 뒤 출석회원들의 투표로 신임 회장을 가리게 된다.

※ 입후보자공고 참고

산악회 송년 산행

아차산서 회원 24명 참석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조창화)는 지난 12월 26일 바보온달장군의 전설이 있는 아차산에서 산악회우 24명이 송년 산행을 했다.

하산뒤 지난 한해 무사 산행에 감사하며 송년 만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장두원 회우가 산악회 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냈다.

♣ 주소 · 전화 바뀌었습니다

· 최종명(崔鍾鳴)회우 : 강원 춘천시 석사동 부영A. 103동 701호 우)200-180

· 이용호(李瑢浩)회우 : 대전시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크 204동 1401호 우)301-131

♣ 본 회 日 誌 (12월)

- 8일 : 김광섭 전 회장 영결식
- 12일 : 편집회의
- 14일 : 제16대 회장후보 등록마감
- 19일 : 제17대 대통령 선거
- 24일 : 복지기금관리위원회
- 25일 : 성탄절

♣ 본회 내방 (12월 1-27일)

- 손님 김영두(서예가) 김종화(예비역 육군소장) 민정우(라이온스 자문 위원) 박제

김광섭 前 회장 大韓言論人會葬 엄수



고 김광섭(金光涉 · 95)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5·6대)의 영결식이 11월 8일 오전 8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대한언론인회장(葬)으로 엄숙히 치러졌다. 제재형 회장은 회우를 대표하여 조사를 했다. (조사 13면). 영결식에는 이혜복, 문제안, 강승훈, 김광희, 박용운, 유성열, 김건이

회우 등이 참석했다.(사진)

김 전 회장은 지난 12월 6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1936년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한 후 조선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했다. 동양통신 편집국장, 서울신문 편집국장, 경향신문 편집국장, 합동통신 부사장,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대한언론인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김근창 전 재미 필립스사 반도체 고문과 4녀를 뒀다. 장동철 전 국민은행 지점장, 유태창 전 대우건설 사장, 박대운 인하대 명예교수가 사위다.

제16대 회장 입후보자 공고

대한언론인회 제16대 회장 입후보자로 다음 2명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함. (12월 15일)



◇ 제재형 (諸宰馨)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 11-502

생년월일 : 1935년 1월 20일

학력

- 마산 중 · 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학과 졸업 (학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석사)
- 장신대 평신도 교육대학원 2년 수료
- 한국장로교육원 2년 수료

경력

- 한국일보 · 서울경제 기자 · 30년근속(정치부 차장, 취재부장, 문화부장, 편집위원, 기사심의위원)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부총재, 연수원장 겸 교수, 고려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고성정판사(인쇄업)대표
- 수원 주말농장 운영위원장 (20년)
- 한국청년회의소 JC신문 논설위원 · 주필, 연수원 교수부장, 서울지구JC특우회 회장
- 서울특별시 수도행정 자문위원(행정개혁분과)
-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환경녹색선교단 단장, 장학재단 이사, 기독교 환경감시단 단장

-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교수(국정이념 · 공직 윤리)
- 국민일보 논설위원
- 고대교우회보 편집국장, 상임편집위원
- 국민홍보위원(서울시 담당)
- 충신교회 장로
- 한국장로신문 논설위원(현) (전무 역임)
- 고대교우 월례강좌회 회장(현)
- (사)대한언론인회 회장(현)
- 한청포럼 고문 · 한국미래포럼 공동대표
- (사) 과학선현 장영실선생 기념사업회 상임 고문

저술

- 한 · 미 수교사
- 정원 산책

상별

- 라이온스 봉사대상
- 자랑스런 고성군민상
- 자랑스러운 고대 정경인상



◇ 조창화 (趙昌化)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아파트1-505

생년월일 : 1938년 10월 18일

학력

- 서울고 졸업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신문대학원 졸업(석사)

경력

- 대한일보 입사
- 대한일보 정치부차장(청와대 출입)
- KBS 정경특집팀장
- KBS 주일특파원
- KBS 보도부국장
- 동 부산 방송총국장
- 동 보도본부부장 겸 보도국장(본부장대우)
- 동 LA 지국장
- 동 기획조정실장(본부장)
- KBS시설관리사업단 사장
- LG그룹 회장실 전략사업단 상임고문
- 국립 한체대 사회교육대학원 스포츠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7년간)
- 우리홈쇼핑설립 초대 CEO역임

저술

- '라디오의 르네상스는 오는가'
- 'KBS경영의 장기전망'
- '멀티미디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21세기 방송론'(멀티미디어화 한국방송의 미래(1988)) 전문신문의 미래 등 논문 저술 다수

상별

- 한국방송대상 수상
- 적십자총재 포상
- 미 USC 대학 공로표창

十匙一飯

십 시 일 반

· 찬조금 · 발전기금 기탁회우

李孝桂 명예회원 500만원



이구열 20만원
고명진 10만원

· 이호계 송실대 총장

■ 회비 내신 회우

· 2008년분

강진형 고두현 권도홍 김건이 김경래 김경중 김명구 김병모 김성배 김수웅 김양삼 김영호 김은구 김진섭 김진현 김태선 김한구 김호곤 김 화 김흥수 남시욱 남재희 맹태균 박기정 박응칠 배병후 서병주 오인문 우경식 유성열 유한준 윤석웅 이두석 이성호 이순기 이억순 이용호 이용희 이종완 이항숙 장 옥 전의식 정만호 조덕동 조덕일 조용중 지갑중 최신호 호현찬

· 2007년분

권도홍 고재혁 고학용 김경래 박기정 이배영

· 2006년분

권도홍(04, 05년 포함)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육(언론인) 박종순(충신교회 목사) 이기수(고려대 교수) 이만준 이병욱 김성렬(국도종합건설 사장)

· 회우 고학용 객찬호 구중서 김세경 김영호 김정훈 동홍석 박진서 신동철 신현구 심재복 오판룡 우경식 유용현 이구열 이성호 이세환 이종운 장석훈 장효상 정재필 조창화 주종환 한영탁 현영건

태평로
칼럼

훈장 遺憾

우리나라에서는 양식(良識)을 가진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일들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어 자주 충격을 받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히 '압권' 급은 기자실에 대못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정부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웃지 못할 '사건' 일 것이다. 단연 해외 토박이가 아닌가 싶다.

"국정과제 추진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충실했다"는 것이 그에게 상을 준 이유란다. 영예(?)의 수상자인 양정철이 누구인가. 자유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머리를 짜낸 이른바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언론말살책을 불도저 처럼 밀어

언젠가 말했다. "훈장을 만드는 값은 10프랑도 안 든다. 그러나 그 결병사들에게 달아주면 죽음의 전쟁터에도 기쁘게 뛰어든다"고. 하긴 우리나라 보다도 더한 아이러니도 동서고금의 역사에선 찾아 볼 수 있다. 사해를 주름잡으며 약탈을 일삼던 해적들에게 영국왕실은 '작위' 베풀까지 내린 예가 수두룩하다. 대영박물관에는 해적들이 해외에서 약탈한 세계 각국의 보물과 문화재가 한몫을 하고 있을 정도다.

히틀러의 신임이 두텁던 나치 선전장 괴벨스는 언론탄압의 수준을 넘어 언론을 통째로 장악해서 도구로 쓴 인물이다. 그는 문화원 원장까지 겸임하면서 연극, 영화, 문학, 음악, 미술까지 정권의 선전도구로



지용우

- 본회 홍보위원장
- 경향신문 사우회장
-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언론 대못질’ 주도에 功 있다니...

불이는 데 물 불 안 가린 사람이다. 대통령의 본부에도 끝까지 기자실을 존속해 오던 국방부마저도 억박 질러서 결국 폐쇄를 강행한 대담한 '통뼈'의 사나이 이다.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의 무소불위한 힘의 근원은 결국 그에게 '완장'을 채워준 노무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믿는 데가 있으니 힘을 쓴다는 평범한 이치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2월 18일의 국무회의에서는 양씨 말고도 모두 206명의 공무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기로 했다는 것이다. 며칠 있으면 막을 내릴 정권말기의 마지막 선심행사다.

나폴레옹의 리더십은 훈장으로부터 나왔다는 말도 있다. 나폴레옹은

삼았다. 그의 취임일성은 "국민정신 함양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는 선언이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가 무섭게 '언론과의 전쟁'을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적대감과 어딘지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다. 언론을 천적으로 여겨 끝까지 '대못질'을 계속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와서 '언론을 사랑해 달라'고 새삼스레 구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과 몇 달만 있으면 들어설 새 정부가 노무현 시대에 만든 모든 족쇄들을 풀고 언론과 다시 원만한 '밀월' 관계로 복원시킬 것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인데도 왜 노 대통령만 끝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아량을 베풀 줄 모른 체 권좌를 떠나려 하는 것인지 딱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고희 有感

세존(世尊)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다. - 사람이 태어나면 늙지 아니할 수 없고, 늙으면 병들지 아니할 수 없으며, 병들면 죽지 아니할 수 없고, 죽으면 중음(中陰)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또 선진국에서는 웰빙이 트렌드이니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도 웰빙과 장수가 트렌드화 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나도 고희를 맞았으니 지금까지는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장수(長壽)'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개념정리를 해 두는게 좋을 듯 싶다.

화하는 농경사회·산업사회·후기 산업사회·정보화사회를 경충경충한 걸음에 달려온 한국 사회는 여러 시대의 가치가 혼재(混在)하며 상충(相衝)하는 사회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좋은 예가 2007대선이였다. BBK에 휩싸였던 이명박후보는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라는 명제에, 그리고 72세에 출마한 이회창후보는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慾 不踰矩)'라는 선현의 말씀에 각각 어긋나는 양상을 보였다.

언론인 생활 40년에 별로 유산을 남기지 못한 자괴감을 늘 안고 사는 내가 장수 한답시고 허구많은 날 병치레나 한다면 자식들에게 이중으로 짐을 지우는 꼴이 되지 않겠나? 아무쪼록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겠



장효상

- 본회 회우
- 전 MBC 워싱턴특파원
- 전 포항 MBC 사장

고령화시대 노인 건강이 곧 愛國

무릇 모든 사람이 장수를 염원하는 바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장수는 병고에 시달리는 본인은 물론 병수발에 골몰하는 가족들의 고생과 경제적 부담, 건강보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등 마이너스 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역으로 한 노인이 건강하게 산다면 본인과 가정과 사회가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그만큼 덜게 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젊은 세대는 사교육비 때문에, 고령세대는 의료비 때문에 너 나 없이 큰 부담을 안고 산다.

대한민국 60년은 압축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 단적인 예가 만 65세 이후를 통칭하는 '지공(지하철 공짜) 세대'이다. 인류 역사상 수 백년이 걸쳐 진

다. 내가 88세까지 살면 내 손자 세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인 18세가 된다. 내가 그때까지 산다면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으로 세현이의 국어·영어·수학 공부를 두루 살펴주면 자식들에게 사교육비를 그만큼 덜어 줄 수 있지 않겠나?

윗 대에서 별로 유산을 받지 못한 내가 건강하게 장수해 의료비 부담 안시키고, 세현이 가정교사 노릇으로 사교육비 덜어 주면 작으나마 자식들에게 유산 남겨 주는 것이 될 터이니 가히 일거양득이로세. 서구 복지사회에서 가임(可妊) 여성이 출산하면 애국(愛國)으로 간주 되듯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 이것 또한 애국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The Prestige XUI 자이

모두가 꿈꾸는 그곳 -

XUI 자이

신문시평

언론이 이제부터 새로이 할 일

대통령선거 투표날 오전 어느 대학교수가 어떤 일로 전화를 걸어 용건을 논의한 뒤, 지나가는 말로 투표했느냐고 물었다. 아직 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했느냐고 반문하니 역시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투표소를 가야할지, 가면 누구를 찍어야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으레 하는 말이라니 하고 웃으며 전화를 끊으려 하니 정색을 하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그런 이들이 꽤 된다고 했다. 명문대학의 고참 교수로 이 나라 대표적 지성인들이 그러면 되느냐고 농을 하니 정말 이번 선거는 고민스럽다며 답답해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이었다. 퇴기(퇴직기자)지만 그래도 시국에 대한 감각이 자기와 다를 것이라며 한번 생각이나 털어와 보라고 했다.

별로 할 일도 없고 오랜만의 통화라 실없는 얘기나 좀 나누자는 뜻인 것 같았다. 나도 가볍게 오늘(19일) 아침 신문 사설들을 보면 그래도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구구절절 나와 있더라고 하니 자기도 대강 보았다고 했다. 그래도 성이 차

당선자 일거수 일투족 을 관찰하고 감시해야

지 않으면 12월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실망하고 화가 나도 투표장엔 갑시다', 14일자 한국일보 사설 '덧새 남은 대선, 싱겁지만 더 관심을'을 읽고 속 좀 달래라고 했더니 찾아보겠다고 했다.

거기에 잔소리를 덧붙였다.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체육관 선거를 보고 겪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조금쯤은 행복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니 그도 동의하며 잠시 옛날을 회상하는 듯 했다.

그 분위기를 틈타 동아일보 12월 10일자 '브라보 코리아'를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다. 약 30년전 미국으로 유학 가서, 지금은 미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중인 오공단씨가 쓴 글인데 나라밖의 시각으로 대통령선거전을 보며 실망하고 화가 난 국내 유권자들에게 그런 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인상적이었다.

위태위태하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조국을 보며 안타까움과 긍지가 교차했던 30년을 비교적 잘 전달, 우리 상황이 생각만큼 최악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하는 따뜻한 글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다.

“이런 멋진 나라를 만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대선 치르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가의 저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너무 걱정 마십시오. 다만 현명한 선택을 하면, 앞으로 5년 심기가 비교적 편하실 테니, 최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 조금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 분을 고르십시오. 연말 잘 보내시고 기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브라보!”

나는 이 대목이 인상적이어서 그 친구에게 일독을 권하며 투표장에 갈 것을 종용했는데 그가 읽었는지, 그리고 투표장에 갔는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유권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고민이 많았다.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어쨌든 격전은 끝나고 승자와 패

◆ 요즘 언론은...

可觀

지난 언론의 대선보도에는 편파성 시비와 특정후보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좌파든 우파든 과거에도 그랬으니 선거가 끝난 지금 새삼스럽게 따지지 말아야 하는가.

사실(fact)보다 이념을 앞세워 공정성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신문과 방송들. 아직도 그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언론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가관은 일부 언론과 방송의 덕담이 넘친 '이비어천가(李飛御天歌)'는 그



렇다치고 특히 친노언론의 반노 논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보는 것이라 새로울 것은 없지만 왠지 씁쓸한 기분이다. 과거 나폴레옹에 대한 모니터르(Moniteur)지(紙)의 표면 사례가 떠오르기 때문일까. (M)

자가 판가름났지만 국민의 승패는 아직 미정이다. 승패는 정치인들의 것이지 국민의 것이 아니란 뜻이다. 투표를 했건 안 했건, 당선자를 찍었건 다른 사람을 찍었건 모두 마찬가지다. 진정한 승패는 새 당선자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는가에 따라 가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최후의 진정한 승자가 되도록 신문은 당선자 측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관찰하고 감시해야 한다. 실망의 구렁텅이에서도 투표를 하라고 국민에게 권했던 바로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말이다. [P]



朴 連 浩

· 본회 회우
·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방송시평

개표방송 戲畫化 바람직한가?

지난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의 투표 개표보도에서 지상파 방송들은 한껏 뽐을 냈다. 전파매체가 아니고서는 흥내를 낼수없는 갖가지 테크닉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입체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전파매체로서의 위력을 과시했다. 이제는 우리들의 눈에 익은 가상 스튜디오를 열고 각종 통계와 영상자료를 수시로 대입하면서 개표 현황을 리얼 타임으로 처리한 것이나 TV보도의 약점이라고 지적되어온 심층분석을 위해 전문가들을 패널로 앉히고 질문과 답변을 수시로 던지면서 개표상황을 엮어 나간것 등은 새로운 포맷은 아니라하더라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만큼 테크닉 면에서 익숙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아쉬운 것은 패널로 초빙된 교수들이 질문과는

시도한 것은 하나의 패거였다. 그러나 승자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이후보가 한나라당사에 도착하여 상황실에서 짹짹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실에 올라가 취재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부인과 함께 당사 현관을 나설 무렵이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KBS중계팀이 막무가내로 이후보 부부를 카메라 앞에 세웠다. 중계팀의 남녀 앵커는 이후보 부부를 에워싸고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KBS의 단독 인터뷰였다.인터뷰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었으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후보 부부를 화면에 잡았다는 것은 이 후보 부부의 표정이 궁금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 셈이었다. 같은 시간 MBC와 SBS는 물론 다른 것을 내고 있었다. 취재전선이 재미있는 것은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데 있다.

이번 대선개표방송에서 또하나 특기할 사항은 포맷 자체를 코믹화하려는 시도다. KBS가 선보인 대선을 마라톤 경기로 희화화한 포맷이 바로 그 대표적 예다. 즉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마라톤 선수로 간주하여 가령 득표율 48%의 후보는

마라톤 중계 하듯 보도 그냥 웃어 넘겨야 하나

시속 48km로 달리는 선수로, 득표율 15.5%의 후보는 15.5km로 달리는 선수로 만드는 등 11명의 선수를 전원 애니메이션화하여 만화 그 자체를 만들고 있다. 프로의 진행방식도 두 앵커가 스포츠 중계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시속 48km로 달리는 이명박후보 골인 지점이 얼마 안남았군요” “시속 0.5km의 이인제 후보 이제야 발걸음을 띠기 시작 하는군요”하는 등 대통령 선거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 그것도 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공영방송 KBS에서 말이다. 만약에 어느 민간 방송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이런 시도를 했다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한국방송 KBS가 나라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장서서 만화화하고 있다는 것은 KBS정책 결정권자들의 양식을 의심게하는 일이다. [P]



趙 昌 化

· 본회 회우
· 전 KBS 기초실장

먼 두루뭇수의 자신 없는 답변을 되풀이 하는 것에 비해 패널로 나선 기자들이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간결하게 답변한 것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취재전선에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말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개표가 자정을 넘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 후보는 가회동 자택을 나섰다. 이후보의 차량행렬은 일로 여의도 한나라당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 뒤를 따르는 취재진의 차량행렬 가운데 카메라를 장착한 오토바이가 눈길을 모았다. MBC의 취재 차량이었다. 와이브로로 전파를 날리며 이후보가 탄 카니발에 바짝 붙은 오토바이는 날렵한 기동성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단연 MBC의 화면은 압권이었다. 같은 시간 KBS와 SBS는 스튜디오 처리를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MBC의 승리였다. 특히 기동성을 고려하여 오토바이를 착안한 것이나 와이브로로 생중계를

語文時評

非核化 뜻과 어긋난 ‘不能化’

어문(語文)과 부딪치는 일에, 지금은 의미가 있다. 하나의 핵시설관련 용어를 그 죽음 늪에서 건져 살려내야 할텐데, 그 일은 바로, 현행 마스크 어문진지(語文陣地)(편집·외신·국제·용어심의)의 일각을 무찔러 깨뜨려야만 당당히 감행할 수 있고, 또한 그동안 너무나 경시해온 교열(校閱)시스템을 강화·부활·작동시킬 때만이 가능하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문제의 핵시설관련 용어란, 2007년 2·13의 6자회담 합의문 ‘다음 단계 조처’중에 나온 ‘기존 핵시설의 불능화(不能化)(disabling/disablement)’ 대목에 버젓이 등장한 번역 한자말 불능화(不能化)다. 난데없이 신문·방송에서 이 말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순간, 처음에는 어안이 병병했으며, 나는 여러 달이 지난 요즘에야 좀 궁리궁리해온 가운데서 가닥을 잡았다는 느낌이 든다.

과연 한국측 표기(번역어)가 맞는 것일까?

중국은 어떻게 쓰고 있으며, 번역대국 일본은 무엇이라 옮겼으며, 북한측은 스스로 무슨 공식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의미 解釋差… ‘사용不可能’과 ‘황소 去勢’ 풀이

한국의 신문을 먼저 보기로 하자. 제시한 원어(原語)표기는 서로 달라 한쪽은 disabling(서울 07.2.17. 동아 07.2.15), 다른 쪽은 disablement (동아 07.2.23/동 3.20)이다.

동명사(動名詞)형이든 타동사(他動詞)로 만든 명사형이든 미국측 표기를 두가지로 간주해 무방하다 하더라도, 한국 신문이 새 용어 불능화(不能化)일색으로 앵무새처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 보도하면서 그 원어까지 확실히 병기하는 친절을 보여준 것은 매우 드문 일에 속한다. 아마도 그 말의 모호성을 당장 막아 보자는 구차스러운 의도였거나, 아니면 그 말에 명석성을 돌워 붙여 환하게 보이도록 생각해서였거나 둘 중의 하나다.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千英宇)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겸임)은 불능화(不能化)를 “더이상 사용 불가능하게 하지는 것”이라며 이 말을 ‘사용 불가능(不可能)하게 한다’는 의미로 풀었다. 이어서 그는 같은 간담회장 포럼에서 “북측 김계관(金桂官)대표가 나에게 ‘황소 거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나는 지난해 2월 17일 위의 신문 보도 기사를 보고, 참으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도 남북이 분단된 지가 오래라서 그런지, 하나의 영어 단어 disabling[사실은 미국 사용어가 이쪽임을 확인]이나 disablement를 놓고 말을 업(業)으로 하는 남북 외교관료의 언어 인식의 대비(對比)에서 보건대 그 의미의 해석차(解釋差)가 이다지도 큰 것인가 하고 뒤늦은 푸념에 젖었다. 한쪽은 ‘사용 불가능(不可能)’이요, 다른 한쪽은 ‘황소거세(去勢)’같다느니 하니 어찌 나같은 언어 선무당의 개탄이 따르지 않았겠는가.

더군다나 한국이 ‘불능화(不能化)’인데 반하여, 황소 거세에 비유하기까지 하던 북한이 정작 노동신문에선 난데없이 공식용어 임시중지(臨時中止)(림시중지)라는 엉뚱한 의역어(意譯語)를 처음부터 내세우고 말았는가 하는 점은, 과장망측하다 못해 두고두고 우리가 통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임시중지’를 풀고 나올 것 같다.

중국은 去功能化로, 번역대국 일본은 無能力化로

그렇다면 6자회담의 마당발 구실을 자처하는 중국은 어떤 말로 그 뜻을 전달하고 있을까.

그들이 채택한 한자 표기는 去功能化(去功能化)(취궁녕화)다. 우리의 해석으로는 혹여 “핵시설



閔 畿

- 본회 회우
-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고문
- 소설가

기능을 제거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강변할 수 있다.

이 말은 제대로 썼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른바 거세(去勢)의 뜻이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지 않은 말이기 때문이다. 중국어 공능(功能)이란 말은 기능·작용·활동능력 등을 뜻하며, 간공능(肝功能)이라고 쓰면 한국말로는 간기능과 같다. 다만 중국어 동사 거(去)(취)는 부정사(否定詞)로는 쓰이는 법이 없다.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떠나다, 물러가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고, 주로 ‘가다, 나가다, 외출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가고 싶는데요’ 할 땐 ‘아요거(我要去)(워야오취)~’로 하면 된다. 전화를 할때나 편지를 낼 때도 ‘거(去)’가 쓰인다. 그러니까 중국의 거(去)자는 다만 한국어의 행(行)이나 왕(往)과 통하는 변의(變義)된 글자다.

짧게 말하면, ‘거기능화(去功能化)’라는 중국의 표기는 ‘핵시설 기능외출(機能外出)’ 곧 ‘기능(機能)을 나가게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이

核 둘러싼 南北 해석 달라

‘사용 불가능’ ‘황소 거세’ 풀이

原義와 동떨어진 造語

‘無能力化’가 올바른 표현

쪽에서 저쪽으로 보낸다는 것이 ‘거(去)’이고, 그 대의어(對義語)가 ‘래(來)’이므로 처지와 경우가 바뀌면 간 것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음은 자명(自明)하다. 그러나 중국 자체의 몇천년 내려온 문자 인식력에 관하여 여기서 굳이 그 모호성을 탓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겠다.

이쯤해서 역시 6자회담의 일원인 일본 쪽을 좀 차분히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도 처음 보도에선 ‘전시설(全施設)을 사용불능(使用不能)하게 한다’면(07. 2. 15: 독매(讀賣)7면)으로 썼고, 그 다음번부터는 ‘핵시설을 무능력화(無能力化)’(07. 2. 16: 일본경제(日本經濟) 9면)로 바꿔 써서 모든 신문·잡지의 통일 표기로 굳혀 왔다. 내내 오늘날까지도 그렇다.

나는 일본의 번역어 ‘무능력화(無能力化)’라는 이 보도용어를 접하면서, 외담되지만 무딘 내 언어 감각으로나마 매우 타당한 disabling의 본의(本義)를 함축하고 있는 적합어(適合語), “능력(能力)을 없애 버리는 것”이라는 어의(語義)를 그 한자말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혼자 쾌재를 부르짖었다.

북한이 비핵화(非核化)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비핵화의 목표라면, 기존 모든 핵시설의 폐기를 의미하는 말이 이 ‘무능력화(無能力化)’라고 누구나 쉽게 이해된다. 왜냐하면 그 시설의 능력이 없도록 조처하게 되면 6지는 곧바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말이란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담겨져야만 의미를 지닌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 쉽고 깊고 재미있게 전달됐을 때 그 말에 만족함을 느낀다.

漢字문화권 韓·中·日 3국 記號들의 의미

직역(直譯)이든 의역(意譯)이든 번역말에 사용된 한자를 뿌리삼아 제멋대로 의미를 해석해 보았자 시간 낭비만 될지 모르나, 그럴수록 주의깊게 원어(原語)에 소급해 가면서 따져봄이 옳다. 어쨌든 한국의 ‘불능화(不能化)’와 일본의 ‘무능력화(無能力化)’를 대비 분석하려 애쓰다가 잠시 고민에 빠졌다. 먼저 ‘불(不)’자와 ‘무(無)’자부터 챙겼다.

한국어에선 그동안 언어 정책이 한글표기 일변도로 부실화(不實化)하여 한자 조어력(造語力)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된지 오래이다. 한자(漢字)에는 글자마다 한자한자에 따른 독자성이 있고, 또 그래서 두자,석자,넉자투로 그 합자(合字)를 형성하여 어떤 사물 따위의 개념을 나타내게 하는 데도 엄연한 그 글자마다의 접속 코드가 앞뒤[가로쓰기때는 좌우(左右)=앞뒤 위치에, 세로쓰기때엔 상하(上下) 위치에 장착되어 있다. 다음에 알기 쉽게 ‘불(不)’과 ‘무(無)’라는 두 글자 주머니에 합자(合字)대상 글자군(群)을 따로따로 갈라서 넣어 보자. ‘말의 아이덴티티 코드표’로 편의상 이름 붙이고, 전혀 접속이 안되는 엉뚱한 합자의 경우는 특별히 눈에 띄도록 꼬리에 의문부(?)를 괄호안에 표시해 달아 보았다.

불(不):+가능(可能)→불가능(不可能)+화(化)→불가능화(不可能化)
+가(可)→불가(不可)+화(化)→불가화(不可化)(?)
+능(能)→불능(不能)+화(化)→불능화(不能化)(?)
+능력(能力)→불능력(不能力)(?)→불능력화(不能力化)(?)
+력(力)→불력(不力)(?)→불력화(不力化)(?)
무(無):+능력(能力)→무능력(無能力)+화(化)→무능력화(無能力化)
+능(能)→무능(無能)+화(化)→무능화(無能化)
+력(力)→ 무력(無力)+화(化)→무력화(無力化)
+가(可)→ 무가(無可)+화(化)→무가화(無可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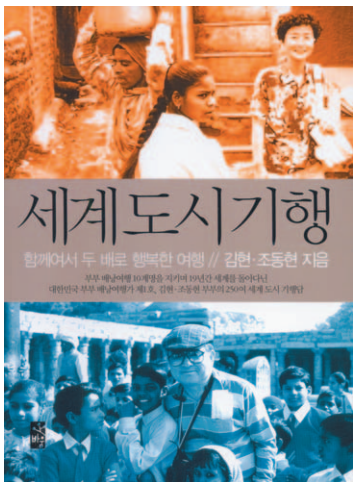
위의 불(不)·무(無)는 둘이 다 부정사(否定詞)다. 더 자세히 말하면 불(不)은 부정의 조동사로서 활용어의 미연형(未然形)에 접속해서 그 동작·상태 따위를 부정하는 말인데 부정의 의사표시를 할 때 ‘~않다/~못한다’에 가차(假借)하여 쓰는 형식어(形式語)다. 무(無)는 부정의 형용사로 유(有)(있음)의 대의어(對義語)인데 이 또한 ‘없다’에 가차(假借)하여 쓰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무(無), 이 세상에 살고있지 않을 경우엔 망(亡)을 사용한다.

한자는 한개의 글자 단위가 형태소(形態素)이니, 능(能)과 화(化)에도 물론 각각 그 의미가 있게 마련이다. 의미적·기능적 현상까지 드러나 있는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불능화(不能化)’란 핵시설의 ‘사용’ 불가능화의 뜻을 담아 꾸며낸 말. ‘불가능(不可能)’을 ‘불능(不能)’으로 줄일 경우엔 ‘화(化)’를 달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불능화(不能化)’에만 ‘화(化)’가 붙는다. 그렇다면 줄여서는 말이 안되는 것이니 표기는 당연히 불가능화(不可能化)라야 한다. 원의(原義)에서 아주 동떨어져 버린 오역(誤譯)에다 조어(造語) 오류까지 겹쳐 저지른 번역 오류어(語)인 이 안팎 곱사둥이 말을 버리고, 외람되게 개인의견을 한가지 밝히자면 차라리 원어(原語)의 뜻에 맞는 바꿈말 ‘무력화(無力化)’나 ‘무기능화(無技能化)’ 따위로 하루빨리 용어 순화(醇化)운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11면에 계속 →

회우가 펴낸 책

<세계도시기행>
함께여서 두 배로 행복한 여행
김현 회우 부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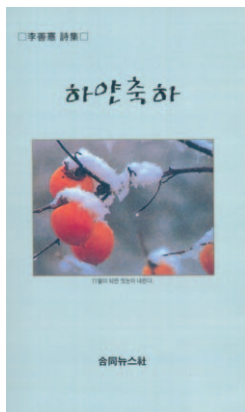


왜 이들이 19년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는지 까지도 알 수 있다. (바움)

<종교인류학>
북두칠성井에서 태양+까지
朴正鎭 회우 지음



李善憲 시집
<하얀축하>
이선희 회우 펴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 해보고 싶은 일이다. 한국 최초의 부부여행가로 불리면서 19년간 세계 250여개의 도시를 여행한 김현(金炫) 회우 부부가 ‘세계 도시 기행’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인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여행담을 풀어놓는다.

해외여행이 점차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감에 따라 많은 여행서적이 출간되고 있지만 ‘세계 도시 기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여행기’

1965년부터 해외여행을 시작한 김현씨와 그의 아내인 조동현씨가 ‘공동으로’ 집필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대한민국 부부 배낭여행가 제1호’라는 별명을 달고 다니는 이들은 혼자서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여행을 했기에 타 여행기와 다른 느낌을 준다. 특히 ‘배우자를 최대한 편안하고 기쁘게 해주도록 노력하라, 여행준비는 부부가 나눠서 하라’와 같은 부부 배낭여행 10계명을 보면

한국인은 왜 종교적 심성이 강한가. 이러한 특징은 앞으로 유리하게 작용할까, 불리하게 작용할까?

인류학 분야의 칼럼니스트 박정진(朴正鎭)회우가 ‘인류학 신서’ 제4권 <종교인류학>을 펴냈다. ‘정(井)’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단군신화와 무교문화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정’이 모든 종교 상징의 시작임을 밝혀낸다. 또한 ‘굿’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예술에 대해 살펴보면서,

‘氣 - 女子 - 地天사상’을 기조로

주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관련 표를 풍부하게 담아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필자 박 회우는 <종교인류학>에서 무교(巫敎)가 종교의 원형이며 ‘기(氣) - 여자(女子) - 지천(地天)사상’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서 지천이라는 뜻은 인류의 삶에 있어서 ‘하늘(天)의 땅(地)’이 먼저가 아니라 ‘땅(地)의 하늘(天)’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적인 종교인류학서다. (불교춘추사)

한 시인은 “시를 쓴다는 것은 자연의 말을 받아쓰기”라고 했고, 또 다른 시인은 “시는 예술이고 평화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라고 했다.

이 말들은 전체적인 표현이라기보다 부분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편할 듯하다. 시는 ‘자연과의 대화’ ‘삶과의 대화’ ‘영혼과의 대화’라고 했을 때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일상 소박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

그리고 한 평론가는, 어떤 시인이 뱀을 보고 ‘너무 길다’라고 표현한데 대해 그것도 훌륭한 시라고 평했다. 시는 있는 그대로이다.

그런 점에서 이선희(李善憲) 회우가 펴낸 시집 <하얀축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쓰고 발표하고 느낀 일상의 소박한 생각이 담겨 있다. (합동뉴스사)



김승웅의

클래식 영화 탐험



· 필자 : 본회 회우 · 빅뉴스포럼 대표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영화 <제3의 사나이>의 타이틀 몰인 사나이 역(役)은 오슨 웰스가 맡았다. 그러나 주역인 그가 상영시간 1백 5분짜리 이 영화에서 모습을 나타낸 시간은 겨우 10분뿐이다. 10분 출연하고 당당 주역인 점은 놀라움의 대상이다.

더욱 더 놀랄 일은 이 영화 <제3의 사나이>와 그 주인공 오슨 웰스를 테마로 저술된 책만해도 (영화 탐험에 나섰던 85년 당시로) 20여권에 달하며, 그같은 연구와 저술은 영화가 나온지 60년되는 지금 까지도 활발하다는 사실이다.

영화 배경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

도시의 중심부를 잠시만 둘러 보아도 영화에 나타났던 장면들이 어림으로 잡힌다.

미 대중소설가 홀리 마틴스(조세프 고튼)가 해리 라임(오슨 웰스)의 초청으로 빈에 도착, 여장을 푼 호텔은 시내 중심인 필하모니가 슈트라세 초입에 있다. 지금의 호텔 이름은 ‘호텔 사헤르’. 유럽 몇 나라 깃발이 호텔 정문에 꽂혀 있고 장식용 화분도 적당히 널려있는, 별 3개 짜리 호텔이다.

홀리는 빈 도착 첫날, 이 호텔 주인으로부터 자신을 초청한 친구 해리가 교통사고로 숨져 이미 매장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으나, 1949년 이 영화를 찍기 위해 런던으로부터 이곳에 도착한 감독 캐럴 리드 이하 스태프와 캐스트 모두가 이 호텔에 투숙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때 이들이 빈에 머문 기간은 정확히 10일 이었다.

교통사고로 숨진 시체를 옮긴 인원이 둘이 아니고 또 한 사람, 즉 제3의 사나이가 별도로 존재했음이 입증된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카이저 요세프 광장이다. 카이저 요세프 2세의 기마(騎馬)동상이 우뚝서서 내려다보는 이 광장에서, 해리 라임이 서류상으로 죽고 제3의 사나이로 전신(轉身)해서 되살아나는 조작이 진행된다.

동상은 영화에는 나타나지 않고 광장 일부와 광장 건너 3층 짜리 회색 건물만 소개됐을 뿐이다.

3층 건물의 지붕에는 라틴 어(語) 숫자로 된 간판이 붙어있다. 빈에서 만나 영화탐험에 동참한 빈 교민 이 경근 씨(당시 48세)는 이 건물이 완공된 1783년을 가리킨다고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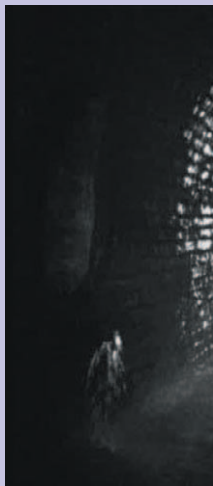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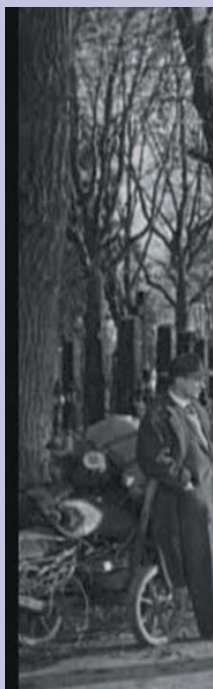
그 건물엔 파라비치니 궁(宮)이라는 표지판도 함께 붙어있다. 이 건물이 왕궁의 부속 건물로 당시 파라비치니라는 성주(城主)의 소유였음을 알 수 있다. 입구의 다른 한 쪽에는 알렉산더 팔비치니의 이름과 ‘빈 관광명소 62호’라는 음각이 새겨져 있다. 주인을 만나보기 위해 계속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다.

광장을 빠져나와서야 그 건물이 오스트리아 왕가 합스부르크 궁전의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나폴레옹을 옥에 가둔 후 유럽의 후사를 좌지우지 하려던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회의는 춤추되 진행되지 않는다(Le congrès danse, mais ne marche pas)”던 ‘빈 회의’(1814)를 바로 곁에서 목격했던 유서깊은 장소임을 알게 된다.

왕궁을 빠져나오면 부르크림 가(街)의 큰 길과 부딪친다. 대로변에 붙은 ‘부르크키노’라는 영화관의 간판 그림이 낮익다 싶어 유심히 본즉 바로 <제3의 사나이>다. 교민 이씨는 매년 초 가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계절을 골라 하

루에 1호 <제3의> 영향을와 데시주립대 한 때 중심지였

“너 빈



· 1백 5분 러닝타임의 속에 그림자를 드러낸 사진은 하수구의 추

사회적 유효적절 영국국의 색까지가 아니 <제3의>편 <지하>로 히트해서 <제>개런 번째 환 이같은 제3의 사 그러나

“영화

• 케럴 리드의

⑧ 끝

제3의 사나이

The Third Man

이 영화가 상영된다고 귀뜸해 준다. 제3의 사나이>란 한 편의 영화가 나오기까지 결정적인 미친 영화가 있다. 로셀리니 감독의 <무방비 도시>가 감독의 <자전거 도둑>이 그것이다(美 아이오와 트랜드 포그 교수).

근세 유럽의 수도로 제국(帝國)의 영화와 번영의 있던 곳, 그러나 영화 촬영 당시 전후(戰後)의 경제



• 빈을 무대로 한 '제3의 사나이'의 포스터

빈의 중립이여! 그래서 뭘 낳았는가?" 自問 남겨



오슨 웰스의 명대사

“오백년 평화로운 스위스에서는
빠꾸기 시계 하나를 만들었지만,
전쟁이 이어지던 이탈리아에서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있었지.”

◀ 이 영화를 감싸고 도는 안톤 카라스의 감미로운 치터 음악, 그리고 마지막 낙엽이 쌓인 가로수 길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다.



이 영화에서 오슨 웰스가 등장하는 신은 10분이 조금 넘을 뿐이다. 그는 영화의 마지막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연으로서 성공은 그의 숨 막힐 듯한 카리스마를 스크린에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으로 뽐내왔기 때문이다.

부패속에서 허덕이던 빈의 실상을 이 영화는 가장 정확하게 포착해서 이용했다고 포그 교수는 주장했다. 이 작가 그레이엄 그린의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각본을 쓴 이 영화는 그린의 표현 그대로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보기위해 만든” 작품이다. 이 <제3의 사나이>가 만들어지기 1년전 그레이엄 그린의 단편 <실>을 한글판출해서 <떨어진 우상(偶像)>의 이름으로 출간한 적이 있는 캐럴 리드는 그린과 다시 의기투합해서 <제3의 사나이>를 만든 것이다. 캐럴 리드 감독이 만든 영화의 제목에는 유달리 숫자와 지명이 많이 붙는다. <8시간의 집행 유예> <첫 열> <베를린에서 온 사나이> <하바나 첩보원> 등등. 캐럴 리드 감독의 취향과 주제를 작가 그린의 수용해서 <제3의 사나이>의 각본을 썼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모든 가설이나 장식은 오슨 웰스의 등장을 예



비하고 정당화시키는 한갓 보조 장식에 불과할 뿐이다. 주인공 해리 라임의 역을 2백% 해낸 오슨 웰스는 이 영화에서 자신이 연기하는 대목의 대사를 직접 썼다. 그는 이보다 전에 출연한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에서도, 또 2년 후의 <오텔로>에서도 자신의 대화를 직접 썼다. <제3의 사나이>로 분장한 오슨 웰스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소설가 홀리에게 내뱉는 독백 - “보르지아 가(家)의 압제는 르네상스를 낳게했다. 그러나 스위스의 5백년에 걸친 평화가 낳은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빠꾸기 시계 뿐이다” 라고 하는 소위 ‘빠꾸기 독백’은 극중 주인공 해리 라임의 소아병적이고 자기 탐닉적인 성격을 가장 리얼하게 들춰낸 즉흥 대사였다. 이 대사는 해리가 홀리를 시내 공원에 있는 공중회전 열차속으로 불러내, 두 사람간의 첫 대화가 이뤄지면서 튀어나온다. 이 공중 회전열차가 있는 프라터 공원의 입구에는

“오슨 웰스, 이곳에서 제3의 사나이를 열연(熱演)!” 했다는 안내판과 사진이 나붙어 있다. 역시 영화 <제3의 사나이>로 생긴 관광 명소다. 웰스는 이 영화에서 단 한 컷, 단 1초의 출연에서도 예사로 얼굴을 내비치지 않는다.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화면에 내비치는 장면을 보자. 그만을 따르는 고양이와 심야의 가로등을 달린다. 고양이가 남의 집 처마 그늘에 숨은 웬 남자의 발목 곁에 웅크린다. 뒤따르던 홀리가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냐!”고 고함을 지르자 동네주민이 “시끄러워!”를 외치며 창문을 열고... 그 창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불빛이 처마 속에 가린 남자의 얼굴을 토해낸다. 어느 영화에서도 기대할 수 없었던 긴박한 영상이 50년도 아카데미 최우수 촬영상을 이 영화에 안겨준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같은 해 칸 영화제 그랑프리는 이 영화의 차지였다.

하수 구내(溝內)의 쫓고 쫓기는 장면은 관객들과는 달리 출연 당사자 특히 웰스에게는 제일 재미없고 힘겨웠던 장면이다. 뚜렷한 이유는 명시돼있지 않으나, 웰스는 하수구 장면을 다른 장소로 옮길 것과 불연(不然)일 경우 출연을 안하겠다고 고집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그 하수구는 지금 한창 장마로 유수량(流水量)이 불어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굳이 보고싶을 경우 빈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시청 관광과 여직원 프라우 빈터가 설명한다.

<제3의 사나이> 테마로 알려진 주제곡은 원래 시내 그린칭(Grinzing)지구에 있는 술집 겸 식당에서 무명의 악사 안톤 카라스가 치타라는 기타 비슷한 악기로 켰던 노래다. 영화 <제3의 사나이>로 이 무명 가수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는다. 원작작자가 알려지지 않아 카라스는 음반 제작료를 거의 독식했다고 오스트리아 저작권 협회장 겸 빈 음대(音大) 작곡과장인 하이트 가터마이어 교수(당시 60세)가 거둔다.

함께 공연한 홀리 역(役)의 조세프 코튼은 이 영화에 앞서 8년전 웰스가 처음으로 감독 주연한 영화 <시민 케인>에서도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었다. 코튼 역시 머큐리 극단 소속 멤버로, 웰스의 동반자였다. 안타까운 점은 웰스식(式) 영화(영어로 Wellesian Cinema라는 단어로 통용됨)에 출연하는 영화 동역자들 특히 “돈과 예술간의 갈등”이라는 웰스 십팔번의 주제가 되는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불명예를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웰스가 메가폰만 잡으면 그 영화는 산다. 그러나 공연자들은 죽는다” 빈은 내가 그곳을 찾았을 당시만 해도 미 CIA와 소련 KGB의 최고 최대 그룹이 포진, 숨막히는 첩보전을 벌이던 도시였다. 얼마 후 터진 일이지만, 최은희 신상옥 부부가 이 도시를 통해 탈출해 넘어왔고 재미 유학생 이재환 군도 바로 이 도시를 통해 북한으로 피랍됐다.

탐험을 마치고 임지인 파리로 돌아오는 기내(機內)에서도 몰래 중얼거려 본다. “너, 빈의 중립이여! 그래서 뭘 낳았는가” 오슨 웰스를 흥내내고 싶은 독백이다. 명화일수록 보고나면 주인공이 닮고 싶어진다. 또 누굴 닮는다는 건 순수한 일이다. 유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8편의 클래식영화 탐험을 여기서 마친다. 명화의 주인공들처럼 나도 용감하고 멋지고, 때로는 아름답게 살고 싶었는데... 명화의 무대 탐험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올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번번히 다짐하던 게 벌써 20년 전 일이라니!

2008년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과 미치는 영향을 재테크코리아 회장 홍용수 회주가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회우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편집자)



홍용수

- 본회 회주
- 재테크코리아 회장
-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1)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2008. 1.1)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2008년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신청 부터 후분양제가 도입돼 40% 이상 건축을 마친 뒤에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공정률 40%는 20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공사할 경우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2008년도에 분양되는 김포신도시와 파주신도시 2차 공급물량 등은 공정률 40% 룰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2010년엔 공정률을 60%, 2012년엔 8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택지아파트는 지금까지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2) 지역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 1년 이상

(2008.1.1)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우선 공급대상자는 새해 1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종전 6개월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광교신도시와 2009년 하반기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 등을 염두에 두고있는 예비청약자라면 서둘러 해당지역으로 전입해 주소를 옮겨놓아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공급물량도 당초 100%에서 30%로 축소돼 새해 1월 청약에 받는 청라지구의 GS건설과 중흥건설 분양물량부터 적용된다.

3) 배우자간 증여공제 3억원에서 6억원

(2008.1.1)

-2008년부터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대상금액이 6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비교적 증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았을 때는 5년 동안 부동산을 매각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4)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

(2008.1.1)

-1998~2003년 까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된 아파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조세특례제한법이 2007년말에 만료된다. 이 기간중 공급된 서울 대치동

-이같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강화로 비교적 거래가 위축되고 대체투자상품인 상가시장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6) 기반시설부담금 지역별 차등징수

(2008.상반기예정)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크지않은 지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인하 및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한 조치라고 본다.

지역 우선 청약하려면 전입 서둘러야 하반기부터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동부센트레빌,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을 최초 분양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2주택자인 경우 특례에 따라 그 이전에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때 2007년말까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9~36%를 내야 한다.

5) 오피스텔 전매제한·지역우선 공급제

(2008. 8. 예정)

-2008년 8월경 부터 오피스텔도 입주 시까지 전매제한이 도입돼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된다. 또한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돼 분양물량의 20%가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지난날 송도국제도시 코오롱 더푸라와 같은 청약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7) 단독주택 재개발·재건축 연한 30년

(2008 예정)

-단독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 연한이 30년으로 강화되면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이 어려워지는 지역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지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2007년 초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였지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재개발 예정지의 지분 쪼개기만 부채질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재개발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 보다 2007년 각 구청별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수는 크게 늘어났다.(예, 강서구 142가구에서 1270가구, 강북구 247가

구에서 728가구로 증가하는 등)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택 노후도, 단위 면적당 주택 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기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양산은 재개발 사업의 연기 내지 무산 될수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 성동구 처럼 재개발 예정지구 공고 단계에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중단해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8) 외국인도 부동산 허가받아 거래

(2008. 2)

-외국 국적 한국 사람들의 한남뉴타운 등 인기 재개발지역의 지분 매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9)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2008)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계약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는 임대인이 투기지역에서 전·월세를 계약후 임차인과 같은 집에서 실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0) 철거민에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2008)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가 40여년 만에 폐지되고, 2008년부터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그 동안 택지지구 아파트 중 일부가 철거민에게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장기 전세주택' 등을 공급할 물량이 부족하고 특별분양권리(일명 입주권, 세칭 '딱지')를 둘러싼 불법 거래나 사기 사건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11) 당선자 공약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와 거래세를 낮추고 대출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견)

양도세를 낮춰 주택거래부터 숨통 터줘야하고, 상당히 침체된 지방경제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방의 전담과 임야에 대한 거래규제도 주택과 함께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비보이의 몸짓보다 모두를 감동시킨 몸짓이 또 있을까요?

김연아의 스케이트 날보다 더 눈부신 칼날이 또 있을까요?

이승엽의 스윙보다 더 자랑스러운 스윙이 또 있을까요?

5000만명이 함께하는 새로운 1등들의 이야기

국민이 만듭니다

미래를 여는 지혜 — KB 국민은행

판문점 휴전 협상

(上)

'신문열차'에서 하룻밤

그 무렵, 문산(汶山)까지 가자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차가 없었다. 신문사에 취재용 자동차가 한대도 없던 시절이다.

기자들은 걸으면서 취재했고, 뛰면서 취재했다.

휴전회담(休戰會談)이 개성(開城)에서 처음 열린 것이 1951년 7월 10일이었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판문점(板門店)으로 옮겨온 것이 다음해인 1952년 10월이다. 허허벌판에 미군 야전용(野戰用) 텐트가 쳐져 있었을 뿐이다.

휴전회담장이다.

살벌하고, 썰렁하고, 을씨년스럽고... 그랬다.

그곳(판문점)까지 가자면 싫으나 좋으나 문산을 거쳐야 했다. 문산이나 판문점이나 모든 것이 파괴되어 건물과 집이란 한 채도 없었다.

그게 어디 예삿일이었는가.

6·25남침, 북한군의 남침 제1호 루트였고 밀고 당기고 피아간의 공방은 피의 발자취 바로 그것이었다.

무엇하나 남아 있을 턱이 없었다.

황량할 따름이었다.

휴전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신문기자들이 서울로 몰려들었다.

서울에 어디 먹고 잘만한 곳이 있었겠나.

겨우 '내자호텔'이 있었을 뿐이었다.

내자호텔은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뒤쪽, 서울경찰청 모서리에 있었다.

휴전회담이 열리기 전날, 우리는 내자호텔까지 가야했다.

그곳에서 UNC, 유엔군 소속 버스가 떠나기 때문이다. 취재기자들은 내외(内外)를 막론하고 그 버스에 타야했다.

그밖에는 회담장소까지 가는 교통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버스는 저녁 무렵 출발했다.

덜덜덜...

버스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신문기자들을 태우고 문산을 향해 떠났다.

박석고개를 넘고, 초가집들이 이마받이를 하고 있는 구과팔 서오능 쪽 길을 지나 북으로 달렸다.

꼬불꼬불. 이윽고 도착한 곳이 문산인데, 그곳에는 덩그러니 벌판에 객차 4~5량을 매단 증기기관차가 허연 수증기를 푸-푸 내뿜으며 서 있었다.

신문열차(新聞列車)다. 이른바 press train 이다.

우리들이 하룻밤 머무는 곳이다. 판문점까지 단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문산, '신문열차'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 일찍 판문점 휴전회담 장소까지 가야 한다.

신문열차 객실은 따뜻했다. 초겨울인데도 난방을 증기기관차가 잘 해주었다. 버스에서 내린 내외신기자들은 우선 침대를 배정받고 잠시 자유시간이다.

유엔군 병사들이 친절하게 시중을 들어준다. 외신기자들에겐 강통맥주 한개에 삼각형 치즈 한조각을 얹어 1달러를 받았다.



· 회담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南日. 그의 왼쪽은 중국대표.

한국기자들에겐 맥주도 공짜였다. 그때의 법은 한국 사람은 외화(外貨)를 가지고 있으면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원칙적으로 외화는 단 1달러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휴전선 설정싸고 입씨름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다. 아침 일찍 신문열차에서 유엔군 버스는 출발했다.

들판 야전천막서 회담 열어 北대표 南日是 국군지프차 그대로 몰고와

굽이굽이 고갯길을 넘고 또 넘으면, 이윽고 판문점에 이른다. 야전 천막이 몇채 덩그러니 회담장임을 알려준다.

잠시후 헬리콥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착륙한다. UN군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이 검은색 손가방을 들고 참모들과 내린다. 그와 동시에 북쪽에서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많이 본 듯한 지프차가 한대 도착한다.

남일(南日)이다.

북쪽 수석대표다.

그는 6·25때 국군이 철수하면서 남겨두고 온 국군 지프차(부대표시·연대표시·대대표시)를 그대로 몰고 온 것이다.

여보란듯이, 그러나 알미운 그 행동은 UN측 기자들의 비웃음을 샀다.

회담은 고성(高聲)이 오가며 진행되고 있었다. 휴전선 라인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등등, 난제들이다.

서부전선-중부전선-중동부전선-동부전선을 잇는 한반도의 횡적 라인의 설정을 놓고 마냥 입씨름이다.

취재기자들은 그 모습을 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북에서 온 기자(?)들

까. 어쨌든 '불능화(不能化)'라는 말은 내가 평소배격해 오는 identity를 잘못 옮긴 말 '정체성(正體性)'의 '정체(正體)'에는 '성(性)'이 못붙듯이, '불능(不能)'에는 '화(化)'가 붙을 수 없다. '의미의 투쟁'이 결여된 한자말 법도(法度)를 파괴한, 그리고 비핵화(非核化)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공허한 기호(記號)의 하나로 그칠 씬평이 높다.

결론을 맺자면, 한자어(漢字語)에선 짝이 되는

金泰運

- 본회회우
- 전 경향신문 서울신문 사회부장
- 파라다이스 산업 사장



은 저희들끼리 모여 잡담이나 하면서 취재는커녕 회담내용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했다.

이윽고, 오늘의 회담 의제가 결렬되고, UN군측 수석대표 조이 미해군 제독은 헬리콥터편으로 떠나버렸다. 남일은 아까 타고 온 노획한 국군 지프차에 앉아 북으로 가버리고...

남은 것은 자유진영측 신문기자들 뿐이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나콜스(미공군)준장이 나타난다.

그는 휴전회담 UN군측 대변인이었다. 환칠한 키에 멋있게 생긴 나콜스 준장은 오늘의 회담상황, 그리고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브리핑한다.

외신기자(外信記者)들은 연신 타이프 라이터의 키를 두들기면서 본사(뉴욕·워싱턴·런던·도쿄 등)에 오늘의 회담 상황을 타전(打電)했다.

그런데 한국기자들은 기사를 송고할 방법이 없었다. 송고해야 하는 시설도, 받아주는 장비도 신문사에 없었으니 딱한 노릇이었다. 부자가 못되는 약소국가의 설움이었다. 우리들은 나콜스의 모습과 외신기자들의 기민성을 그저 부럽게 바라보면서 서 있어야 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의 송고가 마무리되면 신문기자들은 버스에 올라타는 것이다. 그날의 휴전회담이 끝났기 때문이다.

판문점을 뒤로하고 갔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다. 쌀쌀한 날씨에 울적함을 담고, 터벅터벅 서울 내자호텔 앞에 도착한다.

편집국 도착하니 기사는 이미...

신문사 편집국에 이르러보면 그날 있었던 휴전회담뉴스가 뉴욕과 런던과 동경을 거쳐 지구를 한바퀴 돈 후 데스크에 올려져 있는 것이다.

한편 놀랍고 (그 송신 시스템에) 한편 좌절감(우리의 빈약한 시설)이 교차되곤 했다.

우리는 그날의 회담 안팎의 낙수(落穗)를 주워 '내리다지'로 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본 기사는 쓸 엄두도 못내고...

그것이 1952년 무렵의 우리의 자화상이고 또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때 국민소득이 80달러나 됐던가. 나라살림도, 경제규모도, 언론계의 실정도 모두 그만그만했다. 요즘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이다. 그러나 그때는 취재원을 봉쇄하는 대못질은 없었다.

얼마전, 자유로(自由路)가 뚫린후 처음으로 임진각까지 가보았다.

도로 양 옆의 풍경과 쪽 뺨은 아스팔트하며 모든 모습(里程標까지)이 격세의 느낌이었다. 임진각에 이르러 같이 동행했던 친구가 '자유의 다리'로 안내해 주었다. 그 너머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도 보였다.

휴전 후 포로 교환때 미제24사단장 던소장이 건너온 자유의 다리는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일단 건너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도 그랬고...

그 친구가 말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죠, 처절하도록 우리들의 감개가 무량한 것을 요새 애들이 뭐 알겠어요?"

← 7면에서 계속

非核化 뜻과 어긋난 '不能化'

'불능화(不能化)'라는 오역어(誤譯語), 3개의 한자로 만든 이 합성어(合成語)는 비핵화(非核化)와 관련한 대응 용어로서도 그 표현목표에 한참 어긋났으며, 또 말 자체의 언어학적인 아이덴티티 코드에도 안 맞는다. 그 접속력이 약해 보인다고나 해둘

상대말을 생각하지 않고서 다른 한쪽 말을 정의 내리기가 꼭 어려운데, 이 상보적(相補的)관계를 잘 활용하여 쓰고 있는 일본의 통일역어(譯語)인 '무능력화(無能力化)'라는 말은 원어의(原語義)에 비추어 그 적격성이나 명석성도 한결 돋보인다. 북한을 포함한 한자(漢字)문화권 4자중에서 말이다.



*"In my life,
I have many choices."*



Millennium Seoul Hilton

395, 5-ga, Namdaemun-ro, Chung-gu, Seoul, Korea 100-676 C.P.O. BOX 7692 Tel : +82.2.753.7788 Fax : +82.2.317.3273 <http://www.millenniumseoulhilton.co.kr>



弔辭

언론계의 큰 별 金光涉 선생님!

2007년 12월 6일 오전 10시 5분 외 아들 근창씨가 미국서 급거 귀국, 손을 잡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고 인사하자 가물거리는 맥박 게이지가 몇 번 뛰놀다가 3분후 멈췄습니다. 한국언론계의 큰 별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로 애통함과 기뻐함이 교차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유가족 으로서는 백수(百壽)에 이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슬프지만 ‘인생70 고래회’란 세상 법칙에 견줘 보면 복에 복을 다 받은 ‘한세기 인생’ 입에 틀림없으니 기쁘다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중당(中堂) 김광섭(金光涉) 선생님은 1912년 11월 4일 황해도 재령(載寧)에서 출생, 신천(信川)에서 자랐으며 평양 숭실학교를 거쳐 1936년 연희(延禧) 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조선일보 기자로 출발, 장장 70년간을 올곧은 언론계 거목으로서 정론직필을 구사하시면서 자유·민주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시다가 향년 95세를 일기로 서거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후배들은 슬픔에 잠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량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고 읊은 시인 모세의 인생관에 비추보면 천수(天壽)를 누리고 떠나는 셈이니 드물게 보는 복인(福人)이요, 슬하의 자손도 번성한 가문의 호상(好喪)이라 일컬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중당(中堂) 김광섭 선생께서는 한국 신문·통신사를 두루 섭렵하신 유능한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 조선통신 합동통신 대한통신 세계통신 동양통신 서울신문 경향신문 현대경제일보 등을 돌면서 편집국장을 여러번 역임하고, 상무 전무 부사장 편집인 인쇄인 등 경영진에도 참여, 갖가지 요직을 골고루 거쳤습니다. 언론단체에 관해서는 신문편집인



· 지난 12월 6일 별세하신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김광섭 선생님 영정.

그처럼 읽고 싶어하시던 ‘대한언론인회 30년사’ 靈前에 봉정하오니...

협회 감사, 신문회관 감사,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방송윤리위원회와 대한언론인회 5-6대 회장으로 4년간 재임하시면서 원로 언론인 공동체의 발전기틀을 다지셨습니다.

1987년 4월 대한언론인회가 ‘사단법인체’로 전환될 때는 ‘당국에 예속될 수도 있다’는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총회 결의, 등록 인가, 등기 절차 등을 모두 마치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으며 1988년부터 ‘대한언론상’을 시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회보 발송용 봉투에 적힌 주소란의 대한언론인회 홈페이지 중 ‘or’(오거니제이션)라 쓸 것을 ‘oo’(컴퍼니)라 기재한 것은 틀렸으니 즉시 고치라고 직접 전화를 걸어 주셨으며 11월 14일에는 “‘대한언론인회 30년사’ 출판기념회에는 몸이 움직여 주지 않아 못가겠으니 책이나 한권 보내 주시면 고이 간직하겠다”는 편지를 회장 앞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가 중당

(中堂) 선생이 남기신 마지막 필적이 됐다고 여겨집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건강에도 유의 하십시오”라는 당부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제 이곳 서울아산병원 빈소의 중당(中堂) 선생 영전에 이 ‘30년사’ 책을 봉정하면서 감사와 추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책 80페이지에는 “‘신문인’이란 더 없이 자랑스러운 명예”라는 제목 아래 지난 여름에 써 주신 선생님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신문기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강조하시면서 “언론인의 기본적 직업윤리를 선언한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잘 준수할 것”을 당부한 글이 선생의 마지막 쓰신 원고였습니다.

한 세대 한국 언론계를 주름잡았던 강영수(姜永壽) 고제경(高濟經) 원경수(元瓊珠) 선배 등을 같은 연희전문 동문으로 두신 중당(中堂) 선생의 슬하에는 1남 4녀의 아들 딸과 12명의 손자(7명) 손녀(5명)를 두셨으니 얼마나 다복한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외아들 근창(根昌)씨는 서울대 공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엘리트로서 미국 필립스社 반도체 기술고문으로 일하고 있으며, 사위 장동철(張棟澈·전 국민은행 지점장) 유대창(俞泰昌·전 대우건설 사장) 박대운(朴大允·인하대 명예교수) 씨도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하는 일꾼들이니, 실로 선망의 적(的)이 되고도 남습니다.

중당(中堂) 회장님, 선배님께서 못다하신 ‘언론자유 쟁취’는 후배들이 꼭 성취하겠사오니, 걱정 마시고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 이제 고이 잠 드시옵소서.

2007.년 12월 8일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회장 겸 언론인장 장례위원장
제 재 형 올림

· 건강코너

아스피린



전립선비대 막는다!

남성이 나이를 먹으면서 통과와 레처럼 치르는 전립선비대를 아스피린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제니 소버 박사는 의학전문지 ‘역학 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아스피린과 기타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가 전립선비대를 예방 또는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11월 30일 보도했다.

소버 박사는 2천447명의 백인남성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2년

“복용하는 사람 효험”

미 의학전문지 최신호 발표

까지 2년 간격으로 아스피린 및 다른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세레브렉스 등)의 복용과 전립선비대의 상관관계를 조사분석한 결과 아스피린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전립선비대와 기타 각종 배뇨장애 발생률이 각각 50%와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이 전체의 80%였지만 아스피린 외에 다른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효과는 마찬가지였다고 소버 박사는 밝혔다.

복용단위는 어느 것이든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스피린의 경우 저단위 복용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효과는 같게 나타났다.

한국남동발전(주)
www.kosep.co.kr

함께 할수록 커지는 행복

편하고 깨끗해진 환경여, 새 것처럼 고쳐진 바퀴와 손잡이들,
그 것 보다 더 행복한 이유 -
아이들처럼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선하고 맑은 눈,
그리고 정이 묻어나는 파르르 떨리는 손,
오래 오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감동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남동발전나눔봉사단

함께하는 사랑 · 따뜻한 사회



‘남동발전 나눔봉사단’은 전국 12개 지회 72개 봉사팀으로 구성, 자발적인 직원들의 참여와 회사차원의 지원으로 꿈나무 육성, 사회복지, 재난구호 등 나눔과 참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Photo News · 사우회 '07 송년의 밤

送舊迎新



조우회 (조선일보 전직사우 모임) ↑

조선일보 전직 사우 모임 조우회(朝友會·회장 송형목·宋衡穆 회우) '2007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21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명의 전·현직 사우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조우회 송년회에서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맨 왼쪽)이 조우회 회원들과 함께 기념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헤럴드미디어 사우회 →

헤럴드미디어 사우회(회장 송두빈·宋斗彬 회우)는 지난 1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회우 1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판문점 기자동우회 송년의 밤

판문점기자동우회(회장 신경식·辛卿植 회우)는 12월 13일 오후 6시 초 창기 판문점회담 한국수석대표를 지낸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을 초청한

동우회 (동아일보 전직 사우모임) ↓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전직 사우들의 모임인 동우회(東友會)가 1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21층 강당에서 '2007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석(전 국회의원·본회 회우) 동우회장과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김재호 부사장, 민현식 감사 등 전·현직 사우 250여 명이 참석했다.



경향사우회 ←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지용우·池龍雨) 송년회가 12월14일(목) 정동 무궁화부페에서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 김경래 전 편집국장과 고영재 경향신문 사장 등 많은 전 현직 사우들이 참석, 우의를 나누었다.



가운데 2007년 송년의 밤 행사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경식 회장을 비롯, 김경덕, 김용수, 김종옥, 김 집, 박승탁, 박용운, 안훈모, 이도형, 이종준, 최영정, 최종수, 홍성택, 황경춘 씨 등이 참석했다.

·인사이드

언론계 출신 이명박 사람들

역대 대선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언론계 인사가 17대 대선레이스를 전후해 MB(이명박)진영에 들어갔다. 40여명에 이르는 언론계 출신 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대위

공보특보 이동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메시지팀장 신재민 (전 주간조선 편집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강승규(전 경향신문 기자)
뉴미디어팀장 진성호 (전 조선일보 미디어 전문기자)
공보상황실장 박흥신 (전 경향신문 부국장)
지방총괄팀장 김좌열 (전 경북일보 편집국장)
메시지팀 허용범 (전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외신팀장 김현진 (전 중앙일보 부국장)
공보팀 김시관 (전 주간동아 차장)

·언론특보단

이성준 (전 한국일보 편집인)
김호재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종완 (전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김현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
함영준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임연철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영만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임은순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해진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김경희 (전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조명규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진원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이 준 (전 동아일보 사회부장대우)
기세민 (전 남도일보 정치부장)

·방송특보단

양희부 전 방송위 상임위원 (KBS 출신)
구분홍 (전 MBC 보도본부장)
이몽룡 (전 KBS 보도국장)
박원기 (전 KBS 광주 총국장)
양성수 (전 KBS 아트비전 사장)
정국록 (전 진주MBC 사장)
김영일 (전 강릉MBC 사장)
허원제 (전 SBS 이사)
서형래 (전 문화일보 정치부장)
김관상 (전 YTN 보도국장)
김용한 (전 CBS 본부장)
지종학 (전 KBS 스키이 사장)
차용규 (전 울산방송 사장) 등

요즘...



회 우 동 정

‘한국현대시인상’ 수상



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최금녀(崔金女) 회우(시인)= 한국현대시인협회의 '2007년 한국현대시인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12월 10일 오후 3시 대학로 흥사단

수상작은 시집 <큐피드의 독화살>. 심사위원단은 “활달한 상상력으로 죽음의 경험을 초극하여 새로운 시적 권역을 일궈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박기병(朴基秉)회우(전 강원민방사장)= 지난 연말 육군 2사단 보급수송부대와 헌병대에서 ‘국가안보와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 또한 12월 13일 강원도 양구군청에서 전창범 군수로부



태안반도 기름띠 제거작업 봉사

제재형(諸宰馨)본회 회장은 12월 14일 충남 태안군 천리포에 내려가 원유 유출로 오염된 태안 앞바다 기름띠 제거작업 자원봉사에 참가했

다.(사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산하 기독교 환경감시단 단장이기도한 제회장은 남녀 기독교인 1백여명과 함께 이날 천리포교회에 도착,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2천5백명에게 점심을 나눠 주고 바닷가에 나가 방파제에

영겨붙은 기름띠 제거작업을 했다. 제회장 일행은 이날 한기총 선교국(박오섭 목사)에서 모은 3천만원 상당의 피해복구 장비를 현지에 전달했다.

터 양구방산자기박물관의 명예관장 위촉장을 받음. ·최병요(崔秉堯)회우= 12월 5일 서울시 송파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7년 송파구자원봉사자대회에서 자원봉사 200시간을 달성한 공로로 개나리상을 수상했다.

♡ 자녀 결혼 축하합니다

·박영길(朴榮吉)회우 장녀 세은양= 1월 4일(금) 오후 5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 ☎ 016-236-1506

워치! 비밀녹음

시계야? 녹음기야? MP3야?

IT기술, 지능형 손목시계를 낳다
대만 · 일본서 선풍적 인기



- 언제든지 필요시 버튼만 누르면 OK
- 녹음? 음악감상? 재생? 삭제? 컴퓨터저장? 충전까지
- 신문사 기자[인터뷰,취재] 및 강의녹음, 낚시,여행,레저,등산, 각종 스포츠, 선풍적 인기

첩보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007 만능 재주꾼 시계(밀리터리워치)가 출시돼 화제다. USB 메모리 512MB와 2G바이트, MP3를 넘어 MP4플레이어 기능까지, 여기에 손목시계, 보이스 리코더를 한데 묶은 만능 엔터테인먼트 시계. 한층 세련된 외형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녹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연 인기다.

또한 손목에 차고 다니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거의 없고 자체 MP3 재생 기능도 갖춰 이동 중에 음악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오토매틱 파워오프 기능을 통해 음악 감상과 녹음기 기능을 쓴 뒤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일부러 해당 기능을 끄지 않아도 저절로 시계 기능으로 전환된다.

이 제품 역시 요즘 날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USB 제품. 실제 요즘 IT 관련 제품 가운데는 USB를 지원하지 않는 제품은 없을 정도다. 예전에는 투박한 모양새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개성과 취향을 고려한 톡톡 튀는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에이전시(02-2279-2049)에서 시판하고 있는 '밀리터리

워치'가 인기다. 밀리터리워치는 '패션'과 '휴대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스포츠나 야외레저, 여행, 등산, 낚시, 골프 활동은 물론 비즈니스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군인들이 즐겨 찾는 제품이기도 하다.

'밀리터리 워치'는 크리스탈 방화유리로 특수제작, 방수, 충격방지, 정전기 방지 등의 기능도 우수하고 패션형 시계에 MP3플레이어 기능을 완전히 통합한 제품으로 MP3 WMA DPCM 포맷의 음악파일을 재생하며, 팝 록 재즈등 4가지 이퀄라이저 모드 제공이 가능하다.

기존의 케이블 연결형 디자인이나 혹은 USB케이블을 아예 따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 제품들에 비해 '밀리터리 워치'는 시계 고유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따로 분리가 가능한 케이블을 시계줄에 부착, 시·분·초로 나누어진 아날로그 형태에 전혀 부담이 없는 깨끗한 외관이 특징이다.

기존 자체 탑재된 USB케이블로 PC와 연결하게 되면 충전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는데 1회 완전 충전[2시간] 시 7시간 연속 재생할 수 있으며, MP3저장 약 130~500곡, 연속 녹음시간 약 8시간, 녹음 저장시간은 36-144시간까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녹음을 위해 대부분 휴대폰이나 휴대용 녹음기 등을 가지고 녹음하는 경우 사전에 제지당하거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기도 하지만 '밀리터리 워치'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계에다가 보이스 레코딩 기능을 탑재해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되어있어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

실제로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듯 많은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래나 상담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나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는 일이 잦아들면서 휴대용 녹음기를 휴대하면서 녹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휴대용 녹음기의 경우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당하기 십상. 비밀녹음의 어려움이 있으나 '밀리터리워치'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버튼만 누르면 녹음, 음악감상, 재생, 삭제, 컴퓨터 저장, 충전까지 그야말로 만능 재주꾼 시계로서 대만 일본 중국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문의전화 : 온라인에이전시(02-2279-2049)



Care For You

 **중외제약**

첫째도 둘째도 생명입니다

중외제약이 만들어가는 내일은
 생명을 더 존중하는 내일입니다.
 사람을 위해 약이 있고
 생명을 위해 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외제약은 글로벌헬스케어 기업이 되기 위해
 먼저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Global HealthCare Company - 중외제약



미

- 중외제약은 수액제를 비롯한 필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을 선도합니다.
- 중외제약은 글로벌 기준의 R&D기술력으로 획기적인 신약을 창제하고 있습니다.
- 중외제약은 감기약 화콜, 빈혈약 웨럼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 중외제약은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와 '찾아가는 음악회' 후원 등 문화나눔을 실천합니다.
- 중외제약은 건강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글로벌헬스케어컴퍼니를 지향합니다.